

제215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시 정 질 문

이 민 근 의 원

세 번째로, 안산시 에버그린 21의 사업 재진단과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 안산시에버그린 21은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환경재단입니다. 재단의 핵심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환경인증제, 환경교육, 에너지 진단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21이 생기고 난 후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재단 측은 계속해서 고민했어야 했고, 또,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에버그린 21의 사업운영을 보면, 과연 에버그린 21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 21은 우선, 사업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 편성된 24억 2천만원 중 경상적경비의 비중을 보면 인건비, 여비 등 경상 경비와 사업비 중에서도 수당지급, 기념품 구입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약 19억원로 전체사업비 대비 78%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단 예산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재단의 사업추진 노력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포털 검색 기능에서 안산시 에버그린을 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가 있다면 바로 환경인증제 일 것입니다. 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외부적인 언론 홍보도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실체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초 취지와 같이 과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인증제가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재단에서는 2013년도까지 총 310개의 기업과 학교 등에 대해 환경인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310개소가 신청하여 310개소가 다 인증을 받은 점입니다. 한 곳도 탈락한 곳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인증은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다 인증 받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재단 측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하고 있지만 심사표의 평가 내용은 온도계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조명은 LDE등으로 교체했는지, 환경관련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가장 초보적인 평가항목을 정하여 심사수당으로 1건당 21만원에서 28만원까지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몇 몇 심사위원에게는 몇 천만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한 것은 물론, 심사위원의 자격도 환경인증 분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일부 구성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아쉬운 점은 환경인증 후 사후관리 적인 측면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인증 후 기념촬영과 언론보도 이후에는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진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로 정해놓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 08월까지 전체 11,665세대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1가정 당 만오천의 수당을 진단사에게 지급하면서 지금까지 1억 7천 4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의 취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진단사가 가장 기초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 받는 점과 사업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실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단, 재단의 핵심 사업을 두 가지를 말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두 사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에버그린 21이 당초의 목표에 맞게 지금 사업들을 재진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진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전문재단에 맞는 인재

채용과 인력 양성이 그 무엇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환경재단 에버그린 21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업 구조 조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안산시의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있었던 한 해 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안산에만 일어난 외국인 주요 범죄 사항을 보면, 01월 원곡동다문화특구 주택가 성매매 사범 69명 검거, 04월 외국인 근로자 피살, 08월 외국인 성범죄 피의가 검거 과정 중 경찰 3명 부상 등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월 28일 경기지방경찰청 발표 자료를 보면, 재범 우려가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자가 안산이 최다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덧 안산은 전국 제일의 다문화도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03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만 보더라도, 안산시가 7만 5137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에 비친 안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은 어떤 이미지 일까요? 전국 제일의 다문화도시일까요? 외국인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우범지역 일까요?

우리 시가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다문화도시에 맞는 정책과 외국인 범죄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부분을 바로잡으려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외국인 범죄라하여 단순히 경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접근한다면 그 것은 가장 큰 오산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산시와 민간, 관련 유관 기관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외국인 안전과 관련된 정책 자료를 요구 한 바 있는데, 원곡특별순찰대 운영으로 1건만 왔습니다. 더 많은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건만 왔다는 것은 시 전반적인 통일된 정책방향과 이슈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원곡동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안산시 전반적인 노력과 민간참여,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우리 시가 더 이상 외국인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인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주관부서 선정과 유관기관 및 안산시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발생에 따른 한시적인 대처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관리기능을 가지고 해당 사안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방안, 외국인 주민들의 교육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이 있다고 한다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닌, 더욱 철저한 고민과 소통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4.11. 6.(목)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환경교통국장]

< 2차 질문 : 1의원 1건 >

【일괄질문 일괄답변】

○ 이민근 의원 : 1건



안 산 시

□ 환경교통국장 문 종화 입니다.

□ 이 민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버그린21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업 구조 조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환경인증제 사업의 인증 적격성, 심사위원 자격, 수당 개선방안
- 에너지 진단 사업 진단수당 및 개선방안
- 에버그린21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환경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경영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수준에 따라 등급을 인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 2013년까지 환경인증제를 통해 310개 기관을 인증하고 이를 통해 총 4만5천59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인증제 신청 기관 모두가 인증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인증제는 평가가 주 목적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제도로
인증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재검토하여 보완하
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환경인증위원 자격 및 수당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을 재구성하여 기업의 에너지 진단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신규 위촉하고 인증제 보고서
양식 내용을 보완하여 인증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며 다른 기관과 제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하겠습니다.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에너지 진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진단사는 일정의 환경교육과 에너지원별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나 비전문가적 수준의 대기전력 차단과
에너지사용 실태조사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가를 통하여 진단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진단 수당은 가구당 1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진단가구가 모여있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진단하여 이동성이 적은 경우와 현재 진단수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으며, 수당 지급 상한액 등을 정하여 과다 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 환경인증과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는 위원과 진단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닌 정책 제안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에버그린21은 시의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업 전반과 인재 양성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에버그린21은 주요사업의 구조 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세부추진방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혁신'을 원칙으로 비전 수립 과정을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새로운 재단 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속한 시일내 에버그린21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시와 에버그린21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에버그린21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에버그린21이 전국지자체 최초의 환경재단으로서 안산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환경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 민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11. 6.(목)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주민복지국장]

< 2차 질문 : 1의원 1건 >

【일괄질문 일괄답변】

○ 이민근 의원 : 1건



안 산 시

□ 주민복지장 안 상철 입니다.

□ 이 민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안산시 전반적인 노력과 민간참여,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우리시가 더 이상 외국인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안산시 외국인은 2014년 8월 현재 외국인은 6만 9천500명으로 인구의 10%가 외국인 주민이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외국인이 밀집하여 살다 보니 다툼과 범죄도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내국인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 그러나, 외국인 범죄는 발생시 언론 등을 통해 파급되는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커서, 우리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범죄 감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원곡동 특별방법 순찰대, 원곡본동 다문화파출소, 다문화 특구내에 별도로 설치된 치안센터, 경기경찰청 기동대의 제대급 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순찰과 검문검색 강화하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자율방법대를 조직하여 스스로 범죄예방 캠페인과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은 수원 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원곡동 범죄 없는 거리 조성 협의체와, 단원경찰서 주관의 다문화 특구 행복치안 만들기 T/F팀과 연계하여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범죄 없는 다문화마을 특구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들이 몇 년간 혼자 보내며 겪는 외로움 해소를 위해국가별 공동체를 구성하여 축구, 배구, 태권도 등 다양한 체육 활동과 나라별 축제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출하도록 하겠고,

- 국가별 종교행사를 지원하여 내면의 정화를 통한 정신건강 회복으로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한국생활을 마무리 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는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 제도가 개선되어 외국인의 80%를 차지하는 동포들이 입국 시 기초질서 교육을 3시간 받는 것이 9월 1일부터 의무화 되었으며 외국인주민센터와 민간단체 교육장에서 한달에 1,200여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이 교육시간에 기초질서 준수 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관련한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 민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